

기획  
취지문

“모바일 미디어” 특집호를 발간하며

목포대학교 최종명 교수 ( jmchoi@mokpo.ac.kr )



갤럭시, 아이폰 등의 스마트폰과 갤럭시노트 및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 디바이스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의 컴퓨팅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모바일 시대는 기존의 핸드폰으로 대변되던 모바일 시대의 컴퓨팅 환경과는 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 분야이다. 미디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국한할 것인가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대변하는 전자책, 일반 사용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바일 상거래, 모바일 헬스케어, 감성기반 스마트가전, 증강현실 등의 주제로 이번 특집호를 꾸미게 되었다.

전자책은 기존의 데스크톱 컴퓨터 환경이나 핸드폰 환경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거나 성장률이 높지 않았던 분야이지만,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서는 향후 종이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몇 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전자책을 활용한 교육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는 세계 각국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중국의 알리바바는 규모면에서 아마존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점차 모바일 상거래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들도 점차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원고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헬스케어 전용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센서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영상처리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감성기반 스마트가전에서는 감성기반 스마트가전(Smart Perceptive Appliances) SW-SoC 플랫폼 개념과 국·내외 연구동향 및 개발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감성기반의 스마트가전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가전 및 홈 서비스분야의 시장 선점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SW-SoC 융합 플랫폼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증강현실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일반화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에 게임은 물론 교육 등에서 더욱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HTML5의 활성화로 웹브라우저에서도 증강현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한이 완화되었고, 향후에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증강현실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월